

韓國通信學會誌의 새 모습

韓國通信學會가 設立된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回想해보면 그동안 社會 各分野의 發展成長 以上으로 우리 通信界(통신기술, 통신교육, 통신산업, 통신행정 등)도 長足の 발전을 이룩했다 할 것이다.

通信이 經濟社會 發展의 基盤役割을 충실히 이행했거나, 혹은 계속적인 社會發展의 先導役割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通信學會의 活動이 바로 通信界의 成長發展의 基盤이라는 점에서 우리 學會가 맡은 所任이 매우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通信의 構成要素가 다양한 것처럼, 우리 會員의 關心事도 통신기술, 통신시스템, 통신운용, 통신법규 등 매우 다양한 特徵이 있다. 이러한 多樣性を 어떻게 効果적으로 融和發展시키면서 通信技術과 産業發展에 기여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會員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해결해야할 當面課題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學會의 年輪이 滿 11才가 되는 1986年度에 와서 學會活動의 열굴인 學會誌가 큰 變貌를 하게 된 것이다. 즉 學術研究活動을 더욱 振作시키기 위해서 既存의 韓國通信學會誌는 “韓國通信學會論文誌(Journal)”로 專門化되었다. 그리고 會員內의 連帶意識을 고취하고 實務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既存의 別冊 형태인 “情報通信”을 綜合的 定期刊行物인 “韓國通信學會誌(Proceedings, 副題=情報通信)”로 改編하게 된 것이다.

本 學會誌가 通信學會의 特長點을 發展시킴에 있어서는 論文誌에 못지않게 그 役割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今年에는 2回 發刊豫定이지만 내년부터는 季刊으로 성장해서 會員相互間에 情報交換의 重心 廣場으로 곧 定着될 것이다.

本誌의 내용은 會員의 폭넓은 關心을 수용하기 위해서 通信振興, 通信運用, 私設通信, 通信시스템, 技術解説, 學術資料 및 學會消息의 7가지의 기본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미니特輯 칼럼도 추가될 것이다.

情報通信은 經濟社會 발전의 基盤이며, 未來社會의 具現을 促進하기 위한 核心要素이다. 항상 앞서가야하는 通信의 本領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會員들의 꾸준한 精進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會員의 社會活動에 밀거름이 되고 學會의 發展을 촉진할 本誌의 成長發展에 우리 會員들의 계속적인 聲援과 협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훌륭한 原稿를 보내주신 會員諸位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

1986. 6.

編輯委員會 委員長 金 在 均

